

교류회 「마음을 열고」



제 1 회 『육아를 얘기』

장마철인 6월 25일,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테마는 「일본학교와 외국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입니다. 기쁘게도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이타마대학의 선생님과 유학생 기와고에공업고교정시제 선생님과 현에서 파견된 일본어지도원, 복지대학의 선생님. 외국태생 어린이들의 일본어지도담당자. 오늘의 주역인 일본에서 육아중인 외국인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FICEC에 집합하여, 18명이나 참가했습니다.

★왜 이 교류회를 개최했는가

FICEC에서 20여년 외국인지원을 하면서, 몇가지 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FICEC 생활상담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일본사회에 융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왜, 좀처럼 자립이 안되는 것일까. 단지 남을 의지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바로 일본인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후지미노시의 초등학교에서 일본어지도를 하고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 「방학등 쉬는 날이 아닌데도 부모가 학교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애들과 같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2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구정이 끝나고 겨우 돌아왔다. 자녀의 일본어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데다학습도 늦어서 곤란하다」라고 한다.

또, 부모가 모국에 두고온 자녀를 불러들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온 자녀는 일본어가 안되는데, 갑자기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당연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데 자녀들 일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회를 열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쪽 생각해 왔습니다.

★당일의 외국인엄마들로 부터의 화제

일본학교의 특별활동은 너무 엄해서 선배, 후배 관계가 확실해서, 마치 군대와 같다.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유치원부터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해서, 예의범절도 학교에서 배웁니다. 일본은 수업참관이나 PTA등 너무 바쁩니다. 일본 엄마들은 매우 강하고 수퍼우먼과 같습니다. 일본인 남편한테서 일본인 엄마와 같은 역할을 기대해도 너무 힘듭니다. 자녀를 보육원에 넣었더니 놀기만할 뿐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교류회의 이제부터

저는 대만출신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얘기를 좋아합니다. 외국국적의 여러분 시험삼아 이러한 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본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 될 수 있고 일본의 관습과 룰에도 익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일본분들도 마음을 열고 외국 국적의 분들을 받아들이세요. 세계는 지금 차별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번 교류회예정은 FICEC의 Facebook이나 HP에 게재합니다.

테마는 「국제결혼」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국인과의 혼인은 최고? 아니면 최악? 꼭 참가해주세요.

글/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야마자키 도모리

배드민턴스 체험교실개최 !!

후지미시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배드민턴스」를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스폰지볼을 사용해서 배드민턴 코트에서 서로 공을 칩니다.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이 열립니다. 친구사귀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참가해 보세요.

★회장 ; 후지미시 수와초등학교 체육관

★일시 ; 8 / 26 (토) 14 : 00~17 : 00

※신청·문의 ; 후지미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과 Tel.049-251-2711



후지미노시 이벤트뉴스

① 아트 페스타 후지미노 2017



큰 이벤크가 후지미노시에서 열립니다.

테마는 「공생(같이 살기)」

전시장에서 콘서트, 홀라댄스, 수화댄스등 다채로운 퍼포먼스, 그리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바자점포등 하루에는 다 즐길 수 없는 풍성한 이벤트입니다. FICEC 도 한국과 필리핀의 놀이, 필리핀의 무용등으로 참가하여 국제색을 연출합니다.

★일시 ; 10 / 7 (토) 10:00~16:00

★회장: 문화센터, 소요카후지미노, 원형공원

② 올해로 3년, 모두 같이 축하를 니시고우 마쯔리



★회장 ; 가미후쿠오카 니시공민관

★일시 ; 9 / 10 (일) 9 : 45~14 : 00

소프트드링크, 아와오도리, 모의점포등으로봄됩니다. FICEC 도 맛있는 대만이나 중국요리 점포 참가합니다.

FICEC 의 바자상설회장을 만들시다, !!

봄 가을로 년 2 회 실시하는 바자는 늘 FICEC 에 모이는 외국국적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이번에 바자전문회장을 FICEC 2 층에 상설했음. 언제나, 필요할 때, 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생활지원코너의 탄생입니다. 가을 바자대회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놀이삼아 그리고 일본어 공부삼아친구들과 같이오세요 득이되는 쇼핑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후지미시국제포럼 세계로의 「문」에서 하루를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매년, 일본대북 연주로 시작하는 후지미시 「국제교류포럼」은, 외국문화의 일단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체험장입니다. 작년에는 압권의 가스펠송을 들었습니다.

FICEC 도 매년 「놀이코너」 「외국인의 주장」 등 다양한 기획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충실한 하루가 될 것 입니다.

★회장 ; 후지미시 문화회관 키타리☆후지미 1 층 멀티홀

★일시 ; 10 / 7 (토) 11 : 30~15 : 30